

파이낸셜뉴스

1년 만에 왕이 만난 文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

기사입력 2020-11-26 20:20

文대통령, 왕이 中외교부장 접견
 왕이 "시 주석, 문 대통령과 우정
 상호신뢰 증시" 구두메시지 전해
 시진핑 연내 방한 가능성엔
 방역 전제 "여건 성숙되면 성사"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한국과 중국의 코로나 대응 협력에 대해 "국제협력의 모범적 사례를 만들어
 왔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예방을 받고 "그동안 한
 중 양국은 코로나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왕 부장을 접견한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1년만이다.

문 대통령은 "(양국은)코로나 상황속에서 필수인력 왕래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해왔다"며 "신속통
 로제도를 가장 먼저 시행했고, 인적 교류의 점진적 확대 방안에도 합의하면서 국제협력의 모범적
 사례를 만들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 양국이 경제협력과 함께 인적 문화적 교
 류협력을 더 강화해나가면서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발전시켜나가길 바란

다"고 강조했다. 2년 앞으로 다가온 '한중수교 30주년'에 대해선 새로운 30주년을 위한 장기적 협력 방안 마련을 희망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정세와 관련해선 "그동안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과정에서 중국이 보여준 건설적인 역할과 협력에 감사 인사를 표한다"며 "중국을 포함한 국제 사회와 함께 한반도에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완전한 비핵화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왕 부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의 인사를 전한 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양국 정상 간의 관심 속에 양국 관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발전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의 (코로나)방역 협력은 글로벌 방역을 위해 유익한 경험을 쌓았고 또 국제적인 모범사례를 쌓았다"고 강조했다.

왕 부장은 특히 "시 주석께서는 대통령님과의 우정, 상호신뢰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특별히 구두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하셨다"고 전했다.



[서울=뉴스시스]사진공동취재단 = 26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외교부를 방문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 전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11.26.photo@newsis.com /사진=뉴스시스

한편, 왕 부장은 양국이 추진 중인 시 주석의 연내 방한에 대해 '코로나19 통제'를 조건으로 내세웠다.

왕 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 종로구 도림동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가진 후 '시 주석의 연내 방한이 가능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 양측이 해야하는 것은 방문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고, 여건이 성숙되면 성사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성숙된 조건'에 대해선 코로나19 방역용 마스크를 가리켜 코로나19 통제가 선제 조건임을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연내 방한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 ▶ **혁! 소리나는 스!토리 뉴스 [혁스]**
- ▶ **'아는 척'하고 싶은 당신을 위한 [두유노우]**
- ▶ **날로먹고 구워먹는 금융이슈 [파인애플]**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14&aid=0004536251>
